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유 근 택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비계(飛階)를 통해 본 풍경에 대한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박 소 연

비계(飛階)를 통해 본 풍경에 대한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유근택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박 소 연

인 준 서

박소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삶은 개인마다 다르고, 삶의 풍경 또한 개인마다 다르다. 서로 다른 공간 속 삶의 풍경은 각자의 감성과 경험에 따라 다양하다. 의지와 관심의 깊이에 따라 달라 보이는 풍경은 그래서 더 흥미롭기도 하다. 연구자는 삶의 풍경을 <비계(飛階)를 통해 본 풍경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본 논문에서 논해 보고자 한다.

작품의 소재인 비계 (飛階, 건축공사 때 쓰이는 가 설치물)는 2011년 학교 창밖의 풍경인 공사현장을 우연히 보고, 건축의 뼈대와 노동의 불안함이 동시에 느껴졌던 현장에서 우리 주변의 혼한 풍경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중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꾸준한 관심이었던 비계 (飛階, scaffolding) 작업은 최근 황칠나무 (Dendropanax morbifera)와 비과 나무(Loquat)등 다양한 식물과 함께 작품으로 표현한다.

본 논문은 2010년 학부과정 중 시작된 드로잉 작업을 바탕으로 2011년 비계(飛階, scaffolding) 작업이 어떻게 황칠나무, 자연, 풍경 작업과 연결되는지 살펴보고, 대학원 수료 후 2018년 <황칠, 풍경을 통한 비계(飛階)>라는 주제로 전시한 석사청구전 작품까지 자연과 사회 풍경을 어떻게 조형적으로 표현하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서 비계와 황칠에 대한 연구배경과 목적에 대해 살펴보고, 본론의 첫 번째에서 삶속의 풍경이 어떻게 작품으로 연결되어 회화적 조형으로 표현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에서는 작품의 내용연구와 조형연구에서 직선적인 구조물인 비계(飛階)를 2012년부터 나뭇가지 형식으로 재해석한 풍경이 작품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보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황칠나무라는 식물을 풍경과 함께한 조형적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작품 설명을 통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작품을 살펴보고, 2017년부터 장지에 황칠 잎과 줄기를 우려 천연염색 작업을 진행한 것과 2018년부터 에틸알코올로 황칠 원액을 녹여 장지에 작업을 하면서 생긴 재료 변화와 함께 물성에 대해 좀 더 생각하게 되면서 변화된 작품을 통해 비계와 황칠나무 등 삶 속의 풍경이 작품의 회화적, 조형적 변화까지 어떤 영향을 줬는지 본 논문을 통해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 논문은 우리 주변의 혼한 풍경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길 바라는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텅 비어있는 한지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집중하게 되는 마음처럼, 무엇을 짓는다는 시작이 안전한 환경의 시·공간이 되길 바라며 비계(飛階, scaffolding)라는 구조물을 풍경과 함께 작품으로 연구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다양한 선택을 하고 있다. 그 선택은 결과로 이어진다. 소소한 선택들이 쌓여 건강한 삶의 집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의 결과를 작품을 통해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삶속의 풍경	3
2. 내용연구와 조형연구	11
1) 비계(飛階)와 황칠 표현 동기	11
2) 회화적 조형표현	19
3. 작품설명	22
III. 결론	35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1】 <창경궁1>, 드로잉, 장지에 먹, 분채, 23x32cm, 2010
- 【작품2】 <창경궁2>, 드로잉, 장지에 먹, 분채, 23x32cm, 2010
- 【작품3】 <집1>, 드로잉, 한지에 연필 먹 분채, 2011
- 【작품4】 <집2>, 드로잉, 한지에 연필 먹 분채, 2011
- 【작품5】 <집3>, 드로잉, 한지에 먹 분채, 66x53cm, 2011
- 【작품6】 <위안 1-7>, 장지에 먹, 분채, 162.2x130.3cm, 2011
- 【작품7】 <위안2-3>, 장지에 젯소, 먹, 아크릴, 분채, 162.2x130.3cm, 2011
- 【작품8】 <무제>, 장지에 먹 분채 큐알코드, 100x81cm, 2011
- 【작품9】 <공사중>, 장지에 먹 분채, 116.8x91cm, 2012
- 【작품10】 <봄1>, 장지에 먹 분채, 130x161.3cm, 2012
- 【작품11】 <동네1>, 장지에 먹 분채, 91x116.8cm, 2012
- 【작품12】 <꽃계>, 장지에 먹 분채 연필, 91x116.8cm, 2012
- 【작품13】 <비파나무>, 장지에 먹 분채, 213x150cm, 2013
- 【작품14】 <황칠나무>, 장지에 먹 분채, 213x150cm, 2013
- 【작품15】 <비파나무3>, 장지에 먹 분채, 53x37cm, 2013
- 【작품16】 <비파 황칠5>, 장지에 먹 분채, 195x100cm, 2013
- 【작품17】 <비온다>, 장지에 먹 분채, 37x26cm, 2014
- 【작품18】 <납산>, 장지에 먹 분채, 60.5x72.5cm, 2014
- 【작품19】 <비파 황칠6>, 장지에 먹 분채, (37x26cm)x3ea, 2014
- 【작품20】 <비파 황칠 8>, 장지에 먹 분채, 145.5x112cm, 2015
- 【작품21】 <황칠나무 10>, 장지에 먹 채색, 91x116.8cm, 2016
- 【작품22】 <황칠과 천도복숭>, 장지에 천연황칠염색 먹 분채, 72.7x60cm
2017

【작품23】 <황칠나무15>, 장지에 천연황칠염색 먹 분채, 130×161.3cm,
2018

【작품24】 <황칠나무16>, 장지에 천연황칠염색 먹 분채, 161.3×130cm,
2018

【작품25】 <비오는날 황칠나무3>, 장지에 천연황칠염색 먹 분채,
112×146cm, 2018

도 판 목 차

- 【도판1】 정선, <인곡유거도(仁谷幽居圖)>, 1745년, 종이에 엮은 채색,
27.4x27.4, 간송미술관소장, 출처: 최완수 저, 『검재의 한양 진경』,
현암사, 2018, p17

I. 서 론

본 논문 <비계(飛階)를 통해 본 풍경에 대한 연구>는 비계(飛階, scaffolding)를 통해 본 삶의 풍경이 과정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중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다.

비계(飛階, scaffolding)를 황칠나무 (黃漆, *Dendropanax morbifera*)와 함께 표현한 이유는 구체적인 황칠나무(黃漆)로 삶을 표현하고 싶어 그리게 된 작업이다. 그것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풍경을 통해 연구하고 표현한 것이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집, 옥상, 화분, 건축, 안전, 삶, 자연환경, 황칠, 풍경은 2018년 석사청구전 <황칠, 풍경을 통한 비계(飛階)>라는 주제로 연결되었다. 자연환경 속의 다양한 나무 중에서도 황칠나무를 연구한 이유는 황칠의 약용 효과를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 나무의 성장은 환경적으로 많은 것들을 갖춰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연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기기 시작했고, 약용 효과가 있는 황칠나무를 알게 되면서 치유 표현으로 삶 속의 풍경을 작품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비계(飛階) 표현이 황칠나무(黃漆)와 어떻게 회화적 조형연구로 연결되어 표현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첫 번째 삶 속의 풍경과 작품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작품의 내용연구와 조형연구에 있어 비계와 황칠이 어떻게 회화적 조형 표현으로 연결되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품설명을 통해 표현의 결과가 어떤 환경에서

작업 결과물까지 나오게 됐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2017년부터 장지에 황칠 잎과 줄기를 우려 천연염색 작업을 진행한 것과 2018년부터 에틸 알코올로 황칠원액을 녹여 장지에 작업을 하면서 생긴 재료 변화와 함께 물성에 대해 좀 더 생각하게 되면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작품 변화를 작품 설명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삶 속의 풍경

삶의 중심에서 바라보는 사회와 인간, 자연은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조형적인 연구 또한 작품을 통해 표현함에 있어 삶 속의 풍경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그런 시·공간 속의 삶을 작품을 통해 관심과 공감으로 연결되길 바란다.

작품의 내용과 조형적 표현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 사회, 자연으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건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본인은 건축 중에서도 집 구조에 관심이 있었다. 특히 옥상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평상시 풍경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밖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본 연구자는 어릴 때 시골의 작은 어촌 섬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산 중턱에 있던 집은 바다가 보이는 마을 풍경이었다. 섬마을 아이들 놀이 중에는 포대기 깔고 미끄럼 타기, 구슬치기, 쥐불놀이 등이 있었는데 여러 놀이 중에서 본인은 뒷동산에서 그네를 타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 아버지께서 소나무에 줄을 메달아 그네를 만들어 주셨는데, 날씨가 좋은 날은 동생과 그네를 타고 놀면서 마을 풍경을 보던 기억이 생의 가장 첫 기억이다. 그런 어릴 때의 영향 때문이지 평소에도 풍경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어린 시절 기억은 무의식적으로 작업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작업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책과 수업을 통해서이다. 수업을 통해 구체

적인 ‘자기관찰’ 이야기가 작업 안에 스며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연구자는 ‘그럼,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야기’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작업은 다양한 입체적 환경의 결과물이겠지만 조금씩 ‘자기 객관화’를 하는 과정은 수업을 통한 현실 소통을 통해 알게 되었다. 책을 통한 연구, 현실 속에 있는 실기 수업의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토론과 이론수업 등 강의에 집중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작업 변화와 좀 더 큰 담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상황에서 어려운 점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대부분의 인간의 삶이, 돌아볼 것도 없이 자명한 목적들을 위한 수단을 찾아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선택할지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보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이전의 자본주의와는 대조적이게도, 가벼운 자본주의는 가치-강박적일 수밖에 없다. ‘구직란’에 나온 출처가 의심스러운 작은 광고—“차를 가져라, 그러면 여행할 수 있다”—는 오늘날의 과학기술 연구기관들과 실험실의 총수들이 던지는 질문인 “우리는 해결책을 찾았다. 그러니 이제 문제를 찾아보자”라는 말과 나란히, 새롭게 등장한 삶의 문제점을 집약해주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행동을 지배하게 되면서, “어떻게든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왜소화시키고 밀어내버렸다.¹⁾

생각의 레이어층은 환경, 시점, 시간, 집중 등 다양한 구조로 얽혀있다. 얽혀있는 이 다양한 구조 레이어층은 보고 느끼는 사람에 따라 그 밀도는 다

1)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 이일수 옮김, 『액체근대』, (주)도서출판 강, 2009, p.99.

양할 것이다. 연구자 본인은 현재까지 모든 시기가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환경 안에서 작업을 연결해 갈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었다고 생각 한다.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답을 찾지 못했다면 ‘내가 한 작업이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과정이 작업의 결과물로 나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잘 못된 질문을 받고 끊임없이 정답을 찾아 헤매는 일이 많다. 진심이 담긴 필요한 질문과 꼭 알았어야 하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환경은 결과의 효율을 높여주고 관계의 만족도 높여주며, 결국은 삶의 만족도 같이 높여준다고 생각한다.

삶 속의 풍경은 개인마다, 사회마다, 시기마다 다르지만 본 연구자는 현재 어떤 지점이 필요와 공감으로 연결되는지 고민하면서 작업을 연구했었다. ‘만들어진 시각’ 안에서 바라보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간극은 개인마다 감성의 밀도와 느끼는 폭은 다양하다.

특정한 역사적 순간에 시각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 기반이나 세계관이 아니라 단일한 사회 표면 위에 있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들의 집합적 배치의 기능에 의해서이다. 관찰자는 19세기의 새로운 종류의 개인 혹은 주체구성의 한 효과일 뿐이다.
...2)

지금을 살고 있는 본 연구자는 왜 고전 작품에 감동을 받고, 이미 사라지고 없는 형상에 대해 (또는 실물로 본 적 없고 학습을 통해 본 이미지 등)에 공감한다고, 또는 공감하려는 의지를 가지는지 생각해 본다. 생각을 계속 해봐도 그냥 ‘좋다’는 끌림인 것 같다. ‘시선을 붙잡아 두는’ 여러 요소(다양

2) 이진경 편저,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07, p.98.

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봐도 각자의 환경 안에서 읽히는 또는 느껴지는 감동 등)를 많이 가질수록 명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연구자는 예전부터 정선의 작품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정선의 <인곡유거도> 【도판 1】 작품은 작업을 연구함에 있어 큰 영향을 받았던 작품이다.

...조용한 자연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그림의 목표인 까닭에 그 회화적 수법이 사물의 사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 것이다. 동양화에서 자주 보는 자연의 회상은 실제의 자연과 함께 자신과 집단의 꿈을 전통 속에 일치시킨다.³⁾



【도판1】 인곡유거도(仁谷幽居圖), 겸재정선이 살았던 인왕산 골짜기의 집, 영조 21년 을축(1745)경, 70세, 종이에 엮은 채색, 27.4x 27.4cm, 간송미술관소장

3) 김우창, 『풍경과 마음』, 생각의 나무, 2008, p.17.

정선의 <인곡유거도>, (1745) 작품은 본 연구자가 정선의 작품을 통해 영향을 받은 작품 중의 하나로, 풍경이 가지고 있는 고요함과 담백함 속의 따뜻함, 먹의 톤 변화로 느껴지는 무거움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아우라가 그림 속에서 다양한 공간과 공기의 흐름을 느끼게 하는 듯한 작품이었다.

공간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그러지는 대상물의 종류와 크기의 변화, 먹이나 채색의 농담, 운필법의 변화 등이 여기에 관계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에 암시되는 관점이다. 깊이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관점에 따라 세 가지, 즉 고원(高遠)·심원(深遠)·평원(平遠)법이 있다. ... 거리는 저절로 무한으로 연장되고 또 초월적인 것을 시사하는 것이 된다. 깊이는 현실의 것이면서 또 초월적인 것이 된다. 거리나 깊이가 체험자의 일정한 위치에 관계되어 성립하는 공간의 차원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비친 바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체험자에게 속하는 속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체험자는 이미 하나의 고립된 주체가 아니라 수련과 명상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것을 흡수하고 있는 자다. ... 깊이는 한 사람이나 하나의 눈으로 수렴된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자체의 속성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그것은 안개라든지 하는 공기의 상태가 만들어내는 유현한 느낌, 화면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신묘한 기운, 또는 단순히 화면의 전체적 통일성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한다. ... 열린 공간의 느낌이 완전히 추상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무한히 펼쳐지는 기하학의 공간은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산수화에서 필수적인, 근접하기 어려운 장소는 이 깊이의 물적 증거로서 화면 속에 존재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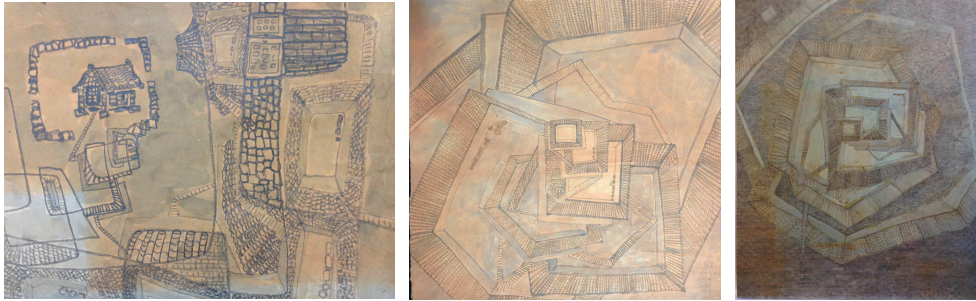


【작품1】 ◀<창경궁1 드로잉>, 장지에 먹, 분채, 23x32cm, 2010
 【작품2】 ▶<창경궁2 드로잉>, 장지에 먹, 분채, 23x32cm, 2010

2010년 학부 과정 중 현장 드로잉의 하나인 창경궁 드로잉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표현하는 과정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이었다. 현장에서 그대로 노출되는 다양한 감각은 추운 날씨부터 더운 날씨까지 다양한 온도 변화까지 현장 드로잉 하는 과정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 시기부터 주변 풍경을 자주 그리기 시작했던 연구자는 과거의 시골집과 2011년에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변형 한옥에 대한 그림을 그렸다. 한국 집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연구해 드로잉 한 작업들은 회화적 조형 표현으로 먹의 톤과 색의 조화에 대한 균형을 연구하는 시간이었다.

4) 김우창, 『풍경과 마음』, 생각의 나무, 2008, p.94-95.



【작품3】 ◀<집1 드로잉>, 한지에 연필 먹 분채, 2011

【작품4】 ▲<집2 드로잉> 한지에 연필 먹 분채, 2011

【작품5】 ▶<집3 드로잉> 한지에 먹 분채, 66x53cm, , 2011

곽희는 임천고치(林泉高致)⁵⁾ (중국 북송 1117년의 산수화 이론서) ‘삼원론’에서 “산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고원’과 산의 앞에서 산의 뒤를 보는 ‘심원’ 그리고 가까운 산에서 먼 산을 바라보는 ‘평원’이 있다.”는 이론서를 통해 후대의 창작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자 또한 현장 드로잉과 한국의 집의 구조에 대한 작품을 하면서 다시점에 대한 작업을 여러 작품으로 표현했다.

삶 속에 풍경을 표현한 연구자는 2011년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살고 있었다. 주변 풍경의 주택들이 인상적이었고, 작품으로 드로잉을 하면서 연구하다 보니, 집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환경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춤

5) “임천고치(林泉高致) “임천(산림과 샘, 또는 은거지를 뜻함)의 뜻, 즉 세속을 초월한 고답(高踏)의 경지를 펼침으로써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수화가는 모름지기 몸소 산천으로 나아가 그것을 취해야 가슴 속에 뚜렷이 펼쳐지며, ‘멀리 바라봄으로써 그 기세를 얻고, 가까이 살핌으로써 그 바탕(質)을 얻어’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제련 개괄해야 가행(可行) 가망(可望) 가유(可遊) 가거(可居)의 산수화의 경지를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음정조모(陰晴朝暮) 등의 경치와 변화를 구별하고, 평원 고원 심원을 삼원이라 하면서 산수화의 취경법(取景法)을 총괄하였다. … 이것은 곽희의 평생동안의 창작경험을 총괄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자연경물에 대한 관찰방법과 태도, 창작에 있어서의 소재선택의 전형화(典型化), 투시법에 있어서의 삼원의 주장 등이 뛰어나다. 이후 산수화 이론과 창작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월간미술 위음, 『세계미술용어사전』, (주)월간미술, 2016

춤하게 층과 층이 겹쳐 만들어진 집의 구조는 나약하지만 연결돼 보였고, 불편해 보였지만 여유로워 보였다. 과거 초등학교 시절까지 어촌에 살았던 연구자는, 어촌에 대한 추억과 ‘도시형 한옥’ 구조와 함께 2011년에 살고 있던 동네를 풍경으로 연구했다.

칸트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경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며 경험 이전에 이미 있어야 하는 조건이며 직관형식이다. 예를 들어 클레의 그림을 본다는 시각적인 경험은 언제나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행해진다. 즉 그러한 경험에는 시간과 공간적 조건이 전제된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경험 이전적이다. 그렇다고 시간을 경험한다거나 공간을 경험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시간과 공간은 경험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경험에 전제되는 조건이다.⁶⁾

칸트가 말한 “시간과 공간은 경험에 전제되는 조건”인 것처럼, 연구자가 삶 속의 풍경을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전제되는 여러 조건 속에서 삶이라는 지속 가능한 전제 조건도 함께해야 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풍경 작업을 한다는 것 또한 풍경을 보고 느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어야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삶의 여러 조건이 사람들 개인마다 사회마다 다양한 작품으로 세상에 나왔으며, 본인 또한 소소한 삶을 통해 풍경을 연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6)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2006, p.181.

2. 내용연구와 조형연구

1) 비계 (飛階)와 황칠 표현 동기

비계(飛階, scaffolding)와 황칠나무(黃漆, *Dendropanax morbifera*)의 작업 계기는 자연스러운 관심의 흐름이었다. 먼저 비계(飛階)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공간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의 ‘전통한옥’과 ‘도시형 한옥’에 관심이 있었던 본인은 2010년 집과 옥상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안전모와 노동과 관련한 건축 연구에 관심이 있었다. 연구하는 과정 중 2011년 7월 창밖을 우연히 봤는데, 건축의 가 설치물인 비계(飛階) 위를 안전모도 없이 위태롭게 걸어 다니는 현장을 보면서 누구보다 위험을 잘 알고 무서웠을 당사자를 보면서 비계 작업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안전한 노동이 우선시되어야 할 건축 환경이 노동자 우선보다는 결과적 이익에만 신경 쓰는 그 장면은 건축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 환경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계 설치작업은 생명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로 보여 좀 더 안전한 노동환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려는 욕심은 인간관계 사이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최소한의 시간과 노동도 들이지 않고 뭔가를 쉽게 얻으려는 이기적인 욕심은 개인적인 친근한 인간관계라는 포장으로 소모적인 고민을 반복하게 만들고,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성과를 내도록 하는 노동의 ‘효율’이라는 단어는 ‘효율’이라는 의미와 가치들로 포장해 생각할 시간도 없이 빠르게 지나치도록 만든다. 그 한 예로 ‘최저임금인상’을 예로 들 수 있다. 말 그대로 인간이 노동하는데 받는 최저의 임금이다. 그걸 법으로 정해 노동환경을 개선해야만 저임금에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이

나 다른 취미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노동시간이 적어도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이 되어야 선택이라는 조건이 생기는 것이다. 적은 노동으로도 각자가 원하는 생활의 균형을 조절해야 삶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 환경 안에서의 불합리한 구조 변화는 국가운영의 권력을 가진 각 분야별 운영자들의 중요한 결정부터 사소한 결정까지 많은 사람들과 환경에 영향을 준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일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 생각해볼 때, 각 분야별 운영자의 이익 가치가 아닌 서민생활 가치에 중심을 두고, 지속적 관심과 직접적인 혜택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바람 일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자의 바람이기도 하다. 그런 노동 환경 안에 무언가를 짓는 시작점이 건강한 환경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어 비계(飛階, scaffolding)와 황칠(黃漆, *Dendropanax morbifera*) 나무를 풍경 작업으로 연구한 것이다.

“비계(scaffolding)란 사다리 끝에 요철과 같은 연결부품들을 두어 이 사다리를 길이 방향으로 연결하면 긴 사다리가 되고, 높이면 발판이 되며 서로 엮으면 사다리의 한 종류로서 삼차원 형태의 어떤 구조물로서 제작할 수 있도록 블록화 시킨 구조물이다.”⁷⁾

비계(飛階)는 한자로 飛(날 비) 階(섬돌 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처음 비계의 한자 뜻을 보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비계의 뜻이 작업의 내용과 함께 조형적 의미를 조금씩 더해 표현하고 싶어 연구한 것이다.

7) 류봉조, 이창노, 김후식, 『비계 구조물의 구조해석 및 진동 특성』. 한국소음진동공학회는문집, 2009, 19(5), 491-498

사물이나 어떠한 행위의 명칭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같은 뜻으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명칭만 보면 무엇을 뜻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새 단어는 기존에 통용되는 단어를 변형 또는 확장시켜 만들게 된다. 개념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게 홍보해야 한다.⁸⁾

황칠나무 또한 그 나무를 잘 설명해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황칠(黃漆)⁹⁾은 黃(누를 황) 漆(옷 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황칠나무의 학명은 *Dendropanax morbifera*. H. Lev이다. 황칠나무를 알게 된 것은 2009년 인터넷 Daum 블로그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다.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던 중 발견한 이 황칠나무에 관한 역사와 신비함에 궁금함이 생겼다. 자료를 더 찾아본 후 그 당시 밭에 뭘 심을지 고민하시던 어머니께 이 나무를 심어보자고 권했다. 그 후로 해마다 연구하면서 약용 효과를 보고, 듣고, 책과 논문 등을 통해 공부해가면서 중요한 나무라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나무에 대한 가치를 표현하고 싶어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나고야 의정서* 시대를 맞이해 생물자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은 약 10만 종류로 그중 약용식물은 약 8,000여 종류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과학적인 검증을 한 약용자원은 약 500여 종류로 전체 약용자원들 중의 약 5%에 불과하며 국내에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약

8) 강성규, 『강성규가 들려주는 안전보건 이야기』, 한국학술정보(주), 2012, p.18.

9) “황칠나무는 두릅나무과 상록 활엽수림으로 전남 서남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만 자생 및 재배되는 난대성 수종으로 수지(樹脂)는 황금색이고 내열, 내구, 내수성이 강하며 부작성 및 광택이 좋아 예로부터 전통공예품에 천연도료 및 민간의약품 소재로 쓰여지고 있다. 황칠나무 학명이 Dendro(그리스어원 '나무'), panax(그리스어원 '만병통치약'), morbi(라틴어원 '병'), ferus(라틴어원 '옴기는')로 '병을 가져가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무인삼이라 불리어지고 있다.” 김선오, 『한방 자생 식물 이용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 식품산업과 영양,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13, p.13

용자원은 50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만 자생하는 약용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이 원산지인 황칠나무 (Dendropanax morbifera LEV)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남해안에서만 생산되는 황칠나무는 옷칠과 함께 전통적으로 도료로 사용되어온 나무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예로부터 각종 질환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 이런 점 때문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인들에 의한 무분별할 약탈로 멸종위기를 맞기도 했다. 최근 들어 황칠나무의 복원사업과 함께 과학적인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¹⁰⁾

몇 년 동안 황칠나무에 집중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연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삶과 자연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황칠나무에 대한 식물 관찰이 가능했던 것은 어머니께서 9년째 키우고 계시면서 밭일을 돕고, 관찰하다 보니 자연의 다양한 풍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작업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 “2018년 3월 기준으로 105개 국가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다(CBD, 2018). 나고야의정서 당사국들은 ABS 관련 법률을 제정하며 이행 준비를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17일에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약칭: 유전자원법)」을 제정, 8월 17일부터 시행하였고 11월 27일에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각국에서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률 또는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생물자원 이용국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생물자원 제공국인 중국은 2016년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었고, 2017년 엄격한 규제를 담은 관련 법률 초안을 발표하였다. 외국인이 중국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중국 내에서만 연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반드시 중국연구원이 참여해야 하며, 이익 공유 비율은 0.5~10%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초안은 현재 부처 간 협의 중이며, 2019년에 법률을 공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연구개발에 필요한 생물자원 상당 부분을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원산국의 법과 규정을 따르고 이익 발생 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등 외국자원 이용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임혜연, 정민경, 안경숙, 류기현, 『나고야의정서와 현지외 보존기관으로서 연구소재 은행의 역할』. 환경정책, 제26권 제2호, 2018, p.48~9.

10) 김선오, 『한방 자생 식물 이용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 식품산업과 영양,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13, p.12

집과 집 사이에는 틈이 존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틈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과거 사이의 추억을 연결시켜 작품으로 표현했던 연구자는 【작품 6】 <위안 1-7>, (2011) 작품을 연구할 시기에 도심 속 집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옥상과 화분에 관심이 있었다. 답답해 보였던 다세대 주택의 구조 사이에는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있었고, 집을 이루고 있는 환경들은 삶의 틈 속에서 즐거움을 찾은 소소한 풍경이 흥미로워 작업으로 표현했다. 특히 집의 옥상은 특징들이 있었는데, 텅 비어있는 옥상이 있는가 하면 화분, 빨랫줄, 운동기구, 버려진 쓰레기 등 다양한 사물과 풍경이 있는 공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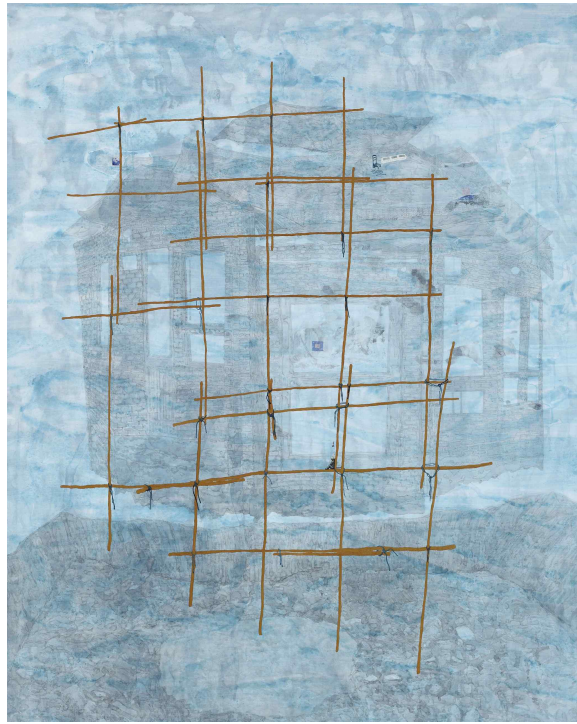
2011년 집의 구조에 대한 여러 작업을 했던 연구자는 작업을 하면서 다시점으로 작품을 표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그림의 시점 자체가 습관적으로 익숙하고 단순한 시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작품 6】 <위안 1-7>, (2011) 작업은 집들마다 다양한 옥상의 풍경을 다시점으로 표현한 것이다. 물론, 추억에 대한 이미지 또한 같이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6】 <위안 1-7>, 장지에 먹, 분채, 162.2x130.3cm, 2011

작품 내용에 있어 책과 미디어, 교육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 구조와 환경에 대한 관심, 좋은 정치의 필요성 등을 알아가고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디테일한 사회구조는 개별적 소중한 존재들이 기회의 불균형을 깨닫지 못하도록 유도시켜 의심하지 않고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사회구조를 보면서 뭔가를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도 집중과 시간이 필요한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곳은 결과적인 차별과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사회구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사회 속의 인간과 자연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작품 7】 <위안 2-3>, (2011) 작업은 학부시절 수업으로 북한산에 야외스케치를 갔을 때 산 중턱에 한쪽 벽만 남겨져 허물어진 집의 구조는 그 중심이 텅 비어있었고, 그 공터에 비가 고여 우물이 생겼었다. 땅의 흙 사이에 생긴

우물에는 하늘의 푸름이 비쳐 인상적이었는데 그 풍경을 비계(飛階)와 연결시켜 작품으로 연구한 것이다.



【작품7】 <위안 2-3>, 장지에 젓소 먹 아크릴 분채, 162.2x130.3cm, 2011

이렇게 비계를 통해 삶이 있는 풍경에 대한 작업을 연구한 본인은 그다음 작업으로 평면작업 속에 영상과 사진을 함께 표현했다. 작품이 정지된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이미지 개념만 한 화면에 담은 것 같지만 실제 작품에 큐알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영상 이미지와 풍경소리가 있는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작업이다.



[부분]



[부분]

【작품 8】 <무제>, 2011, 장지에 먹 분채 큐알코드, 100x81cm

【작품 8】 <무제>, 2011 작품은 평면적 회화 작품이 QR코드라는 바코드 안에 영상 작품과 함께 연결 표현한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 다음(Daum) 블로그에 연동시켜 작품을 연구한 【작품 8】은 큐알코드를 스마트 기기로 찍으면 연구자 블로그 사이트로 연결되어 화면을 볼 수 있었다. 화면 안에는 실제 풍경과 음악을 연결시킨 영상 작품이며, 이 작업을 연구할 당시 시간과 공간에 대한 평면회화와 미디어 사이에 관심이 있었다. 인터넷으로 연동되는 영상이미지에 대한 작품의 내용은 본 연구자가 직접 촬영한 자연풍경과 일러스트 동영상으로 만든 몇 분짜리 영상이었다. 회화 작품 속 코드에 움직이는 영상과 풍경이 들어있는 것과 관객 참여가 동반되어야만 평면 안에 영상을 볼 수 있는 그 사이의 개념을 의도한 작품이다. 현재는 다음(DAUM)사이트에서 QR코드 생성을 지원하지 않아 연결이 멈춘 상태이다. 입체적인 움직임이 있던 코드 안에 사이트가 지원을 멈춰 정지된 평면 이미지로만 남은 이 코드는 흥미로운 지점으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연구할 계획이다.

프리드리히 키틀러는 『광학적 미디어: 1999년 베를린 강의 예술, 기술, 전쟁』 책에서 “... 전통적 역사의 시대에는 글쓰기라는 수공예적 예술이 미기록

분의 망망대해, 즉 날 것 그대로의 접근 불가능성과 대립하고 있었다면, 미디어의 시대에는 기술적 정보와 화이트 노이즈 사이에, 그러니까 상징계와 실재계 사이에 새로운 대립 관계가 출현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¹¹⁾라고 말했다.

또한 ‘테크놀로지, 사회와 예술이 서로 교차하는 접점에 비판적 관심을 갖고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이광석 저자는 『데이터 사회 미학』에서 “...신흥 미디어를 갖고 표현을 확장하는 장르영역들은 창·제작 실험의 내용과 가치를 살릴 때 그 분류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바일 아트’의 장르 구분 역시 최신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문화 예술 생산의 주체들이 특정 사회문화적 이슈와 결합하여 창작과 미학적 개입의 상황 구축에 적절히 응용하는 상황에서 진정 유효하다는 뜻이다.”¹²⁾ 라고 말했다.

본 연구자 또한 이 말에 동의하며, 그건 미디어뿐만 아니라 회화,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장르에도 포함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2) 회화적 조형표현

작품에 회화적 조형 표현이라는 것이 너무나 방대해 분명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연구자는 평소 풍경을 바라봄에 있어 조형적으로 해석하며 읽으려는 습관이 있다. 사물이나 풍경이 가지고 있는 외형의 균형, 변화, 비율, 점·선·면 등의 조형적 균형감각, 부피와 질량의 차이에서 오는 균형감각 등을 풍경 안에서 음악을 듣듯이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 모든 시간을 그런

11) 프리드리히 키틀러, 윤원화 옮김, 『광학적 미디어: 1999년 베를린 강의 예술, 기술, 전쟁』, 현실문화, 2011, p.70.

12) 이광석, 『데이터 사회 미학』, 미디어버스, 2017, p.263.

방법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평소 공백시간에 풍경을 조형적 균형 감각을 느끼면서 바라보기도 하였다. 그런 방법을 15년 전부터 연습을 한 습관이 연구자 작품의 조형적 감각으로 현재까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며, 작품의 내용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다른 회화적 조형 감각과 작품내용의 영향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책과 예술가들의 다양한 작품과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습관 또한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시인, 작가, 예술가라면 세상만물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교감하고 있다는 것을 예민하게 느껴야 합니다.”¹³⁾ 라는 말처럼, 삶 속의 풍경을 집중하고, 해석하고, 연결시켜 생각하던 습관이 조형감각과 내용으로 작품 안에 표현되었다고 생각한다.

햇빛은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고 사방으로 쏟아지지만, 쏟아져 없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쏟아짐은 일종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햇살은 ‘확장되다’(ekteinesthai)라는 말에서 유래하여 ‘확장자들’(aktines)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햇빛은 좁은 틈을 뚫고 어두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너는 햇살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을 것이다. 햇빛은 직선으로 확장되며, 공기가 통과할 수 없는 더 단단한 물체를 만나면 굴절한다. 그곳에서의 빛은 정지할 뿐, 미끄러지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신의 쏟아짐과 사방으로 퍼져나감도 그런 것이어야 하고, 쏟아져 없어짐이 아니라 확장이어야 하며, 장애물과 무리하게 격렬히 충돌하거나 아래로 떨어져서는 안 되고, 버티고 서서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비취야 한다. 그러나 정신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스

13) 김종철, 『녹색평론』, 녹색평론사, 통권 제 114호, 2010, p.28.

스로 햇살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¹⁴⁾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의 한 구절인 이 글은 불 꺼진 방안에 어둠이 무거울 때 떠올렸던 글이다. 불면증으로 잠을 잘 못 자던 시기에 머릿속에서 맴돌았던 이 구절은 2013-2015년 사이 연구자의 몇 작품에 표현되어 있다.

방안에 키우던 작은 화분이 다 죽었었는데 어느 날 그 사이에 작은 새싹이 피어났다. 그 후로 작품의 작은 새싹, 생명력에 대한 관심이 자연에 대한 다양한 식물과 함께하는 조형적 표현으로 작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풍경에 길게 배어 있는 슬픔, 나직하게 솟은 산, 녹아내리는 납처럼 부드럽고 흐르는 장조(長調)의 화음, 온 세상이 소박하고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 잠들어 있다. 멀리 지평선에는 노랗게 빛나는 해바라기가 희미하게 아른거리고, 길 양쪽으로 무성히 늘어선 나무들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독하고 쓸쓸한 풍경 앞에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상념에 잠겨있다. 이따금 바람이 단조로운 소리를 내며 불어 오면, 마른 목소리로 속삭이던 나뭇잎도 그 위세에 눌러 숨을 죽인다.¹⁵⁾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¹⁶⁾의 『인상과 풍경』은 풍경을 언어로 표현함

14)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천병희 옮김, 『명상록』, 도서출판 숲, 2005, p.142~3.

15)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엄지영 옮김, 『인상과 풍경』, 펍클클래식 코리아, 2008, p.32~33.

16)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Federico García Lorca, 1898년~1936년)는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시인, 극작가. 스페인 남부의 푸엔테바케로스에서 태어났다. 전통 민요와 마을 축제, 강렬한 태양과 자연의 생명력, 다양한 이민족과 뒤엀킨 피의 역사등 스페인에서 가장 돋보이는 안달루시아 지역의 문화는 어린 시절부터 줄곧 로르카를 사로잡아 작품세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1909년 그라나다 시로 이주한 로르카는 돈 안토니오 세구라 메사의 지도 아래 피아니스트로서 먼저 두각을 나타내지만, 아버지의 강권으로 그라나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다가 곧 그만둔다. 1918년 산문집 『인상과 풍경』을 출간하여 성공을 거둔다. 이후

에 있어 회화적이며 날카롭고, 아름다운 글이라고 생각한다. 풍경을 표현하는 집중력과 감성이 상상력을 끌어내 풍경이 저절로 떠오르도록 하며, 우리가 풍경을 대하는 감성의 집중력과 표현력이 얼마만큼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느끼게 해 준 글이다. 풍경을 통한 조형 표현을 회화적 작품으로 연구하고자 한 연구자는 앞으로도 자연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며, 풍경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3.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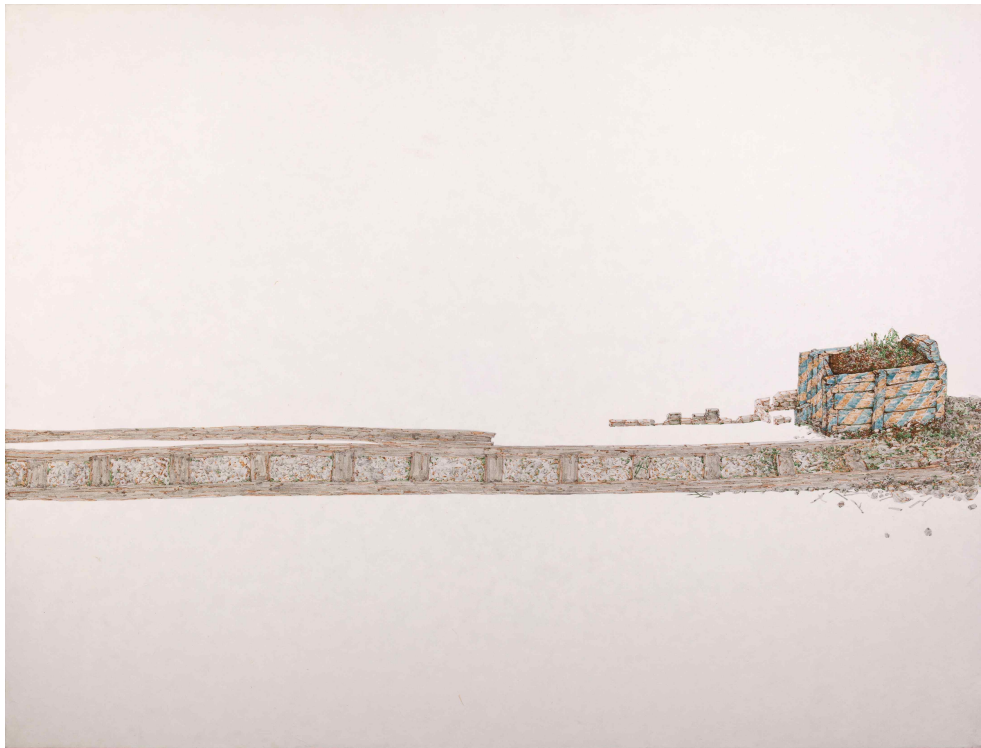
2011년 작품의 연장선에 있는 비계(飛階, scaffolding) 작품이 나뭇가지 형식으로 풍경을 통해 어떻게 표현하는지 2012년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 2013년 황칠(黃漆, *Dendropanax morbifera*) 나무와 비파나무(Loquat)등을 표현한 자연 풍경과 2017년 천연황칠염색 작업이 2018년 황칠나무 연작까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작품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작품 9】 <공사중>, (2012) 작품은 비계(飛階) 틀을 나뭇가지로 표현한 것이며, 창밖 옥상의 풍경과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관찰한 풍경을 표현한 작품이다.

1919년 스페인 인문주의의 보고라고 표현될 정도로 우수한 예술가와 학자를 배출한 마드리드의 ‘레시덴시아 데 에스투디안테스’에 입학한다. 이곳에서 화가 살바도르 달리, 영화감독 루이 브뤼엘, 시인 라파엘 알베르티, 후안 라몬 히메네스 등의 문우들과 모임을 함께하며 본격적으로 문학의 기반을 닦는다.” 엄지영 옮김, 『인상과 풍경』, 펭귄클래식 코리아, 2008



【작품9】 <공사중>, 장지에 먹 분채, 116.8x91cm, 2012



【작품 10】 <봄1>, 장지에 먹 분채, 130x161.3cm, 2012

【작품 10】 <봄 1>, (2012)은 같은 풍경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다.

【작품 11】 <동네 1> (2012), 【작품 12】 <꽃게> (2012) 이 두 작품은 연작 중 하나로, 동네 아파트 앞 화단의 모습을 오고 가면서 1년 이상 관찰해서 그린 것이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앞 화단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나무 가지들이 있었다.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해, 또는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이 구조물은 작은 텃밭을 위한 것인지 다른 무언가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했다. 우연히 만들어진 풍경을 나 스스로 필연적으로 받아들인 풍경을 본 작품으로 재해석해 표현한 것이다. 동네를 오고 가면서 관찰하고 기록했던 이 풍경은 풍경 속 일부에서 큰 사회를 본 느낌이었다.



【작품11】 <동네1>, 장지에 먹 분채, 91x116.8cm,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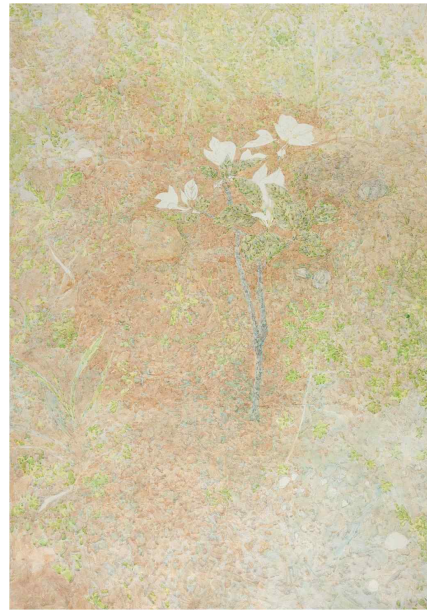


【작품 12】 <꽃계>, 장지에 먹 분채 연필, 91x116.8cm, 2012

【작품 13】 <비파나무>, (2013)와 【작품 14】 <황칠나무>, (2013)은 여러 풀들과 함께 자라는 땅과 식물을 그린 것이다. 지구의 환경변화 중 온도 변화는 열과 추위에 견디지 못한 식물을 말라죽게 하기 때문에 어떤 나무를 키울 때는 자생하는 여러 풀들과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¹⁷⁾ <침묵의 봄>에서 “... 자연의 균형이란 유동적이고 계속 변화하며 조절과 조정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인간

17) “레이첼 카슨(Rachel Darson, 1907년~1964년)은 1907년 펜실베이니아 주 스프링테일에서 태어났으며, 작가가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 여자대학(오늘날의 체텀 칼리지)에서 공부하던 중 전공을 문학에서 생물학으로 바꿨는데, 1929년 졸업할 당시 이 학교에서 과학 전공으로 학위를 받은 보기드문 여학생이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해양생물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볼티모어 선> 지에 자연사에 관한 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1937~1952년 미국 어류·야생동물국에서 해양생물학자로 일했으며, 글쓰기에 전념하기 위해 그만두었다. 레이첼 카슨은 첫 번째 책 《해풍 아래서》를 1941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살충제 남용의 위험을 널리 알린 이 책 《침묵의 봄》을 1962년에 펴냈다. 해양생물학 관련 저서의 완결편이라 할 수 있는 《바다의 가장자리》에서는 핵폐기물의 해양 투척에 반대하며 전 세계에 그 위험을 경고했다.”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 김은령 옮김, 홍유희 감수, 『침묵의 봄』, 에코리브르, 2011

역시 자연이 이루는 균형의 일부분이다.”라고 말하면서 균형 있는 자연의 중요성과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경고했었다.



- ▲ 【작품 13】 <비파나무>, 장지에 먹 분채, 213x150cm, 2013
- ▼ 【작품 14】 <황칠나무>, 장지에 먹 분채, 213x150cm, 2013

“토양은 서로 연결된 생물들로 촘촘하게 짜인 거미줄과도 같다. 생물은 토양에 의지해 살며, 토양 역시 공동체를 구성한 생물들이 번성할 때에만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토양을 불모지로 만드는 화학약품들이 직접 뿌러지거나 숲 · 과수원 · 밭에 뿌려진 살충제가 비에 섞여 토양에 스며들 때 토양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이 다양한 생물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¹⁸⁾

18)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 김은령 옮김, 홍욱희 감수, 『침묵의 봄』, 에코리브르, 2011, p.81.



- ▲ 【작품 15】 <비파나무3>, 장지에 먹 분채, 53x37cm, 2013
- ▼ 【작품 16】 <비과, 황칠5>, 장지에 먹 분채, 195x100cm, 2013

【작품 15】 <비파나무3> (2013), 【작품 16】 <비과, 황칠5> (2013)은 여러 풀과 함께하는 환경을 비파나무를 통해 연구한 작품이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과제전>, 가온전시실, 2013



◀ 【작품 17】 <비온다>, 장지에 먹 분채, 37×26cm, 2014
 ▶ 【작품 18】 <남산>, 장지에 먹 분채, 60.5×72.5cm , 2014

【작품 17】 <비온다>, (2014)는 불면증이 있던 시기에 밖에 빗소리가 들려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해 그린 작품이다. 【작품 18】 <남산>, (2014) 작품은 남산 산책로 중 한 곳을 그린 것이다. 계절의 연속은 땅의 위와 아래에 또 다른 가치로 남아있다.



【작품 19】 <비파 황칠 6>, 장지에 먹 분채, (37×26cm)x3ea, 2014

【작품 19】 <비파 황칠 6>, (2014) 작업은 비파나무와 황칠나무의 풍경을 비계(飛階)와 함께 표현한 것이다. 이 작품은 추운 겨울 11월에 꽃이 피기 시작

해 겨울 내내 피어있는 비파 꽃과 1년 내내 푸른 상록수의 황칠나무를 같이 표현한 작업이다.



【작품 20】 <비파 황칠 8>, 장지에 먹 분채, 145.5×112cm, 2015

【작품 20】 <비파, 황칠 8>(2015), 【작품 21】 <황칠나무 10>(2016)
작품은 시공간 안에서 자연이 주는 치유를 표현하고, 그 자연이 어떤 환경과 함께 살아가는지를 작업으로 표현하고 싶어 연구한 작품이다.



【작품 21】 <황칠나무 10>, 장지에 먹 채색 91×116.8cm, 2016



【작품 22】 <황칠과 천도복숭>, 장지에 천연황칠염색 먹 분채, 72.7×60cm, 2017

【작품 22】 <황칠과 천도복숭>, (2017) 작업은 천연황칠염색한 작업으로 천도복숭아 나무에 꽃이 피고 지면서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밭에서 실물관찰을 하면서 삶의 과정을 풍경을 통해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23】 <황칠나무 15>, 장지에 천연황칠염색 먹 분채, 130×161.3cm, 2018

【작품 23】 <황칠나무 15>, (2018) 작업은 상처를 치유하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와 잎의 생명력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황칠나무의 모습을 표현한 작업이다. 저 멀리 있는 넓은 풍경은 가까이에서 보면 다양한 자연의 생명들이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자연을 통해 느끼는 거대함은 끝없는 이야기

를 해주는 것 같다. 몇 년 전부터 벌은 생태계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작업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작품 24】 <황칠나무 16>, 장지에 천연황칠염색 먹 분채, 161.3×130cm, 2018

【작품 24】 <황칠나무 16>(2018) 작업은 장지에 천연황칠염색을 좀 진하게 염색해 땅이 가지고 있는 건강함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의 대지를 표현하고 싶었다. 식물이 자랄 수 있고, 새로운 싹이 틀 수 있고, 다른 곤충과 풀들도 한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 25】 <비오는날 황칠나무 3>, 장지에 천연황칠염색 먹 분채, 112×146cm, 2018

【작품 25】 <비오는날 황칠나무 3>(2018) 작업은 비가 오고, 햇볕이 내리쬐는 다양한 자연 속 황칠나무를 표현한 작업이다. 황칠나무라는 구체적인 나무를 통해 삶을 살아감에 있어 시기별 겪는 사소한 좌절부터 커다란 좌절까지 치유하고 치료를 해가면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작품으로 연구한 것이다.

Ⅲ. 결 론

삶의 과정 안에서 지금을 선택하고, 이어나가고, 선택하고, 이어나간다. 축복이라 여기는 순간에 감사하며, 내가 받은 축복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방식이 본인은 작품을 통해서이다. 그림을 그리는 이 일이 축복이라 여기며, 그 축복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다른 사람에게 작게나마 공감으로 연결되기 기대한다.

본 연구 논문 <비계(飛階)를 통해 본 풍경에 대한 연구>를 연구하다 보니 연구자 성향의 일부분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 본인은 비계(飛階, scaffolding)와 황칠나무 (黃漆, *Dendropanax morbifera*)라는 주제로 건강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풍경을 연구를 하면서 견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견고함을 만들어갈 중요한 시작점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선택한 어떤 지점을 중심으로 확장하고 연결해 가는 경향이 있다. 한 지점에서 틀을 만들면 조금씩 변화하고, 틀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다른 방향의 지점으로 틀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본인은 다시점으로 어떤 지점의 틀을 만들고 연구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논문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그건 비계를 어떤 지점으로 표현하고 왜 표현하는지에 대한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시작해야 시작된다’는 말처럼, 시작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어떤 방향과 중심으로 시작되는지도 중요하다. 텅 비어있는 한지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집중하게 되는 마음처럼, 무언가를 짓는다는 것이 환경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시작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비계(飛階)를 연구하였다. 앞으로의 작품 또한 가벼운 드로잉부터 무거운 사회적 담론의 작품 내용까지 무엇을 표현

하고자 하는지, 왜 그런 작품을 하는지 꾸준히 고민하고 연구하며, 삶 속의 다양한 자연과 풍경을 작품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강성규, 『강성규가 들려주는 안전보건 이야기』, 한국학술정보(주), 2012
- 김우창, 『풍경과 마음』, 생각의 나무, 2008
- 김종철, 『녹색평론』, 녹색평론사, 통권 제 114호, 2010
- 레이첼 카슨, 김은령 옮김, 홍옥희 감수, 『침묵의 봄』, 에코리브르, 2011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천병희 옮김, 『명상록』, 도서출판 숲, 2005
- 이광석, 『데이터 사회 미학』, 미디어버스, 2017
- 이진경 편저,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07
-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2006
- 월간미술연구소, 『세계미술용어사전』, (주)월간미술, 2016
- 지그문트 바우만, 이일수 옮김, 『액체근대』, (주)도서출판 강, 2009
- 프리드리히 키틀러, 윤원화 옮김, 『광학적 미디어: 1999년 베를린 강의 예술, 기술, 전쟁』, 현실문화, 2011
- 페데르코 가르시아 로르카, 엄지영 옮김, 『인상과 풍경』, 펍킨클래식 코리아, 2008

학술논문

- 김선오, 『한방 자생 식물 이용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 식품산업과 영양』,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13
- 류봉조, 이창노, 김후식, 『비계 구조물의 구조해석 및 진동 특성』,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2009
- 임혜연, 정민경, 안경숙, 류기현, 『나고야의정서와 현지의 보존기관으로서 연구소재 은행의 역할』, 환경정책, 제26권 제2호, 2018

ABSTRACT

Study on Landscape Through Scaffold

-With a Main Focus on the Author's Work-

Park, Soyeun

Departmen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Life differs from person to person, and the landscape of life also varies among individuals. The landscape of life in different spaces varies depending on one's emotions and experiences. The landscape is perceiv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depth of volition and interest, making it even more amusing.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aims to discuss the landscape of life under the theme of "Study on Landscape Through Scaffold(飛階)".

It was in the year 2011 when the researcher was first inspired by the scaffold (飛階, installation used for construction work), the subject for this work, while the researcher happened to witness the construction site through the school window, a landscape where the construction frame and insecurity of labor were both felt at the same time, with the hope that this common landscape would become

the center of healthy and safe lives. The scaffolding (飛階) work, which had been of steady interest since then, has been expressed in recent works along with various plants such as *Dendropanax morbifera* and *Loquat*.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scaffolding work in 2011 is linked to the works of *Dendropanax morbifera*, nature and landscape based on the drawing work that began during the undergraduate program in 2010, and describes how natural and social landscapes are expressed formatively through the masters exhibition work exhibited under the theme "*Dendropanax morbifera*, Scaffolding through Landscape" in 2018.

The introduction section of this paper examines the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of scaffolding and *Dendropanax morbifera*, and the first section of the main subject investigates how landscapes of life are connected to be expressed as a pictorial work. The second section on the context study and the composition study of the works examines how the landscape in which the straight-line structure, scaffold (飛階), has been reinterpreted into branch form since 2012, is expressed as a work; and from 2013 to 2016, it investigates the formative study that incorporated the plant called *Dendropanax morbifera* to the landscape. Thirdly, the paper examines the works from 2011 to 2018 through work explanation and aims to briefly describe the impact of landscapes of life such as

scaffolding and *Dendropanax morbifera* on paintings and sculptures through the material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works of applying the melting of *Dendropanax morbifera* by ethyl alcohol to the paper screen and the works of applying natural dyeing of *Dendropanax morbifera* leaves and stems to the paper screen, along with deeper insights into the property of matter.

This research paper originated from the concern of desiring the common landscapes around us to provide a more balanced life with safer and healthier spaces. Just like the focused mind pondering what to draw on a blank hanji paper, the researcher aimed to integrate the structure of scaffolding (飛階) and landscape into works with the hope that every construction would begin within a safe space-time environment. We continue to make various choices in our daily lives. And those choices lead to results. Hence, the researcher proceeded work with the hope that these small choices would pile up to become a home of healthy lives, an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results of such processes through works.